



지난 10일 충청북도 진천선수촌에서 여자 배구팀 김연경이 스파이크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을 넘어라”…한국 금65개·종합 2위 목표



지난 10일 충청북도 진천선수촌에서 태권도 대표팀 이대훈이 발차기 훈련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차기 올림픽 개최지 일본, 국가적 지원 속 전력 급상승
양궁·유도·볼링·사이클 등 강세종목 일본과 경쟁 예고
한국 208개 메달 목표…축구 손흥민·배구 김연경 ‘주목’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D-31〉

한국은 1998년 방콕부터 2014 인천 대회까지 아시안게임에서 중국에 이어 5회 연속 종합 2위에 올라 아시아 스포츠 강국의 명성을 이어오고 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2018 자카르타-팔렘방 대회에서도 대한체육회가 제시한 선수단의 목표는 당연히 ‘종합 2위 수상’이다.

1990년 히로시마 대회부터 꼬박꼬박 금메달만 100개 넘게 수집하며 최강을 지킨 중국의 아성이 여전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국은 2020년 올림픽 개최국인 ‘숙적’ 일본과 어느 때보다 치열한 2위 경쟁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개최국이던 4년 전 인천 대회(금 79·은 70·동 79)뿐만 아니라 2010 광저우 대회(금 76·은 65·동 91)에서도 금메달 70개 이상 거머쥔 한국은 이번

대회도 75개의 금메달을 목표로 잡고 준비해왔다. 그러나 올림픽 대비에 힘을 쏟는 일본의 전력이 급상승해 쉽지 않은 메달 레이스가 예상되면서 목표를 다소 낮췄다.

특히 우리가 강세를 보이는 양궁, 유도, 볼링, 레슬링, 사이클 등에서 일본이 잠식할 가능성이 있는 메달 수가 적지 않아 총 60개 이상의 금메달을 가져갈 것이라는 예상이다.

일본은 올림픽에 대비한 전력 분석 차원에서 대부분 종목에서 국가대표 1진이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우리 선수단의 금메달 목표도 65개로 하향조정됐지만, 종합 2위 목표가 바뀌는 건 아니다.

선수단은 금메달 65개, 은메달 71개, 동메달 72개 등 총 208개의 메달을 기대하고 있다.

태권도(9개), 양궁·펜싱(이상 7개), 유도(5개), 사이클(4개) 등 전통의 강세 종목에서 금메달 39개 이상을 바라본다.

육상 여자 100m 허들의 정혜림과 수영 여자 200m 개인혼영 김서영 등 기초 종목, 스포츠클라임과 패러글라이딩 등 신규 종목에서 금메달 7

개 이상을 노린다. 골프, 핸드볼, 역도 등도 금메달 후보로 꼽히는 종목들이다.

메달 레이스에는 프로스포츠 스타들과 국제대회마다 착적 메달을 안기는 ‘효자 종목’들이 앞장선다.

가장 주목받는 선수는 한국 축구의 간판 손흥민(토트넘)과 여자배구의 ‘현재 진행형 전설’ 김연경(타키 엑자시바시)이다. 두 선수가 나설 남자 축구와 여자배구는 모두 한국이 2회 연속 우승을 노린다.

특히 손흥민의 경우 유럽 무대에서 지금과 같은 활약을 이어가려면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주어지는 병역 특례혜택이 절실하다. 그는 최근 러시아 월드컵에서도 한국 축구 ‘에이스’로 존재감을 떨쳐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기대감을 더욱 높였다.

4년 뒤면 30대 중반에 접어드는 김연경은 이번 대회가 자신의 네 번째이자 마지막 아시안게임이 될 수도 있다. 그가 후배들과 다시 한 번 금메달의 영광을 이룰지 관심을 끄는 이유다.

여기에 9년 연속 태극마크를 달고 아시안게임 3회 연속 우승에 도전하는 태권도의 이대훈(대전 시체육회), 아시안게임 개인전 우승이 아직 없는 사격의 진중오(kt) 등 종목별 최강자들의 활약도 관건이다.

올림픽을 비롯한 세계 무대에서도 정상급 실력을 자랑하는 펜싱과 양궁은 이번 대회에서도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겠다는 각오다. /연합뉴스

야구 첫 상대는 대만

한국, 내달 26일 첫 경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3회 연속 우승에 도전하는 한국 야구대표팀이 첫 경기부터 강력한 ‘금메달 경쟁구’ 대만과 격돌한다. 아시아야구연맹(BFA)은 최근 아시안게임 야구 종목 조 편성을 실시해 대회 조직위원회에 전달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BFA 조 편성 결과에 따르면 이번 대회에는 한국, 일본, 대만, 중국, 홍콩,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태국, 라오스, 스리랑카 등 역대 최다인 10개국 출전한다. 당초 11개국이 참가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몽골이 최근 참가 의사를 철회했다.

먼저 BFA는 아시아지역에서 하위랭킹인 태국, 라오스, 스리랑카 3개국이 8월 21~23일 1라운드를 펼쳐 1위 팀만 2라운드에 진출하도록 결정했다.

한국은 8개국이 참가하는 2라운드에서 대만, 홍콩, 인도네시아와 함께 B조에 편성됐다.

특히 한국은 26일 오후 6시30분(현지시간) 열리는 1차전에서 강호 대만과 맞붙게 됐다.

대만은 역대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놓고 항상 한국과 경쟁한 최대 라이벌이다. /연합뉴스

팻딘, KIA 반전의 승부수 던진다

불펜으로 보직변경…AG 휴식기 전 순위싸움 총력
좌완 불펜 활용 폭 넓혀…선발 라인업 빈 자리는 고민

KIA 타이거즈가 팻딘을 중간으로 돌려 한 달간의 총력전에 나선다.

KIA는 17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라이온즈와의 경기를 시작으로 후반기 일정에 돌입했다. 헥터가 스타트를 끊었던 전반기와 다르게 KIA는 양현종을 시작으로 후반기 선발 로테이션 가운데 들어갔다.

등판 순서와 함께 선발진 멤버 구성에도 변화가 예고됐다. 17일 김기태 감독은 “불펜에서 팻딘이 역할을 하게 된다. 선발 로테이션에서는 빠진다. 불펜으로 계속 쓸 예정이다”고 언급했다.

전반기가 끝난 뒤 팻딘의 거취가 관심사가 됐다. 팻딘은 지난 시즌 후반기에 사실상 팀의 에이스 역할을 하면서 우승에 힘을 보탰지만, 올 시즌 결과는 좋지 못했다.

조반 승운이 따르지 않았고 이후 스스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다. 팻딘은 전반기에 불펜으로 나온 1경기를 포함해 18경기에 출전해, 6.22의 평균자책점으로 2승 5패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KIA는 팻딘을 비롯한 ‘우승 멤버’들의 전제적인 부진과 맞물려 이렇다 할 힘도 쓰지 못하고 전반기를 흘려보냈다.

한화 이글스가 전반기 종료와 함께 제이슨 휠러(3승 9패, 평균자책점 5.13)를 웨이버 공시하고 데이비드 헤일을 영입하면서 다음 시선은 팻딘에게 쏠렸다. KIA의 선택은 ‘동행’ 그리고 ‘보직 이동’이었다.

오는 8월 16일 KBO리그는 아시안게임 휴식기에 들어간다. 앞으로 한 달, 각 팀은 총력전을 하면서 순위 싸움의 중요한 시간을 보내게 된다.

KIA는 팻딘을 불펜에서 최대한 활용하는 쪽으로 승부수를 던졌다. 이에 따라 전반기에 최고 151km를 찍는 등 빠른 공을 가진 팻딘은 짧은 이닝을 전력으로 소화하면서 불펜에 힘을 보태게 됐다. 임기준 홀로 역할을 하고 있던 좌완 불펜에도 옵션이 늘었다.

물론 해결해야 하는 숙제는 있다. 팻딘이 자리

를 이동하면서 선발 한 자리가 비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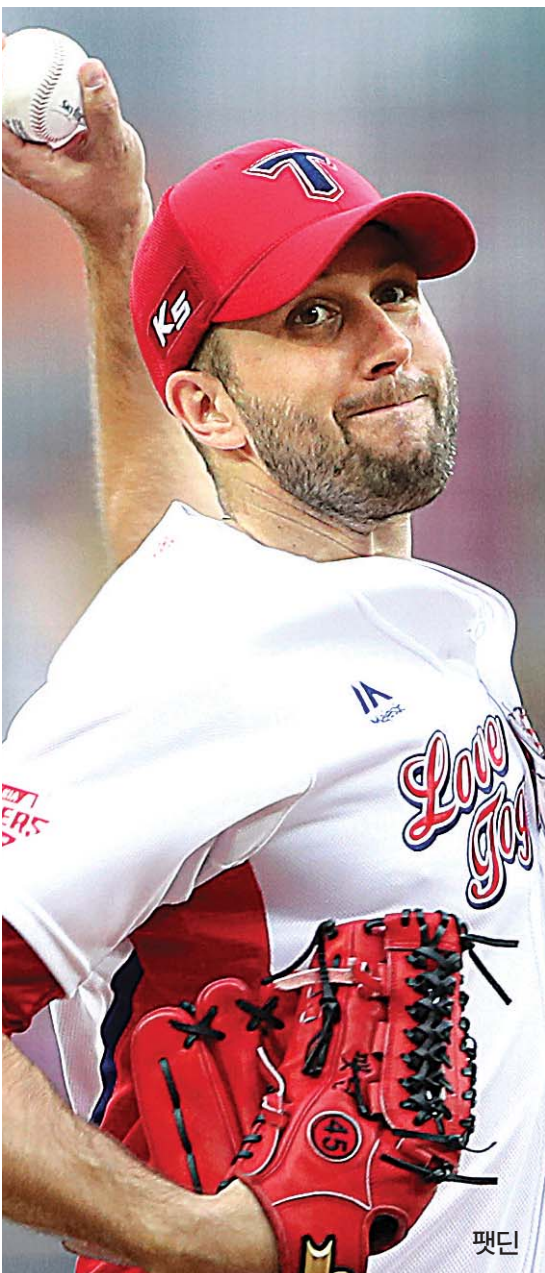
KIA는 임기영이 어깨 부상으로 빠지면서 헥터-양현종-팻딘-이민우-정용운으로 선발진을 꾸려 올 시즌을 출발했었다. 하지만 이민우와 정용운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모습을 보이면서 한승혁, 윤석민, 황인준, 김유신 등이 선발 자리에서 테스트를 받았다.

돌아온 임기영과 함께 한승혁이 한 자리를 책임지면서 선발 로테이션이 완성됐지만, 팻딘이 빠지게 되면서 다시 KIA의 선발 고민이 시작됐다.

일단 KIA는 후반기 첫 3연전인 삼성과의 대결에 나설 투수들은 모두 확정했다.

양현종에 이어 헥터 그리고 임기영이 후반기 첫 승 사냥에 나선다. kt 위즈와의 주박 3연전에 맞춰 오는 21일 한승혁이 엔트리에 등록되고, 일요일인 22일에는 양현종이 다시 출전한다. 이에 따라 20일 선발 한 자리가 비어있다.

지난 시즌 후반기 반전을 이뤘던 팻딘이 올 시즌에도 KIA의 후반기 순위 싸움에 불을 붙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



팻딘

덕아웃 T 톡톡

▲캠프하는 느낌입니다 = KIA 타이거즈 선수들이 낫선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에 섰다. KIA는 17일 삼성전을 시작으로 오는 8월 5일 두산전까지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리는 11경기에서 ‘핫 서머 페스티벌’을 연다. 금호타이어와 함께 하는 이번 행사를 위해 국내 최초로 야구장에서 물놀이 축

제를 열었던 KIA는 외야에 어린이 물놀이장을 다시 개장한다. 또 현장 구매를 하는 중고생·대학생을 대상으로 할인 행사도 벌인다. 선수들은 이 기간에 서머 페스티벌 특별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나선다. 특별 유니폼은 KIA의 주색인 남색을 바탕으로 하늘색 호피 무늬를 넣었다. 모자도 흰색에 남색, 헬멧 역시 진한 남색이다. 새 모자를 쓰고 훈련에 나선 최형우는 “(스프링) 캠프하는 느낌이

다”고 말했고, 남색 헬멧을 착용한 최정민은 동료들에게 “초등학생 같이 않나?”면서 어색해했다.

▲그래서 더 빠르게 뛰었나 봐 = 서머 페스티벌 특별 유니폼을 입고 첫 훈련을 한 17일. 덕아웃에서도 ‘유니폼’이 핫 이슈가 됐다. 예전 해대 유니폼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검은 헬멧과 검정 바지 그리고 검정 스파이크까지 갖춰 입고 야구를 했던 김종국 코치는 “여름에 대구에서 야구하면 정

말 힘들었다. 스파이크까지 검정이라서 발이 뜨거웠다. 발이 뜨거워서 더 빠르게 움직였는지도 모르겠다”는 농담을 하며 웃었다.

▲통증 없다고 하니가 = ‘깡탄’이 돌아왔다. 지난 4일 허리 통증으로 재활군으로 내려갔던 김주찬이 17일 엔트리에 등록됐다. 김기태 감독은 경기에 앞서 “김주찬이 1루 선발로 나온다. 통증이 없다고 한다”며 김주찬의 복귀를 알렸다. 김주찬은 이날 6번 타자 겸 1루수로 선발 출전했다. 또 후반기 시작에 맞춰 지난 6월 8일 2군으로 내려갔던 이대진 투수 코치가 1군에 복귀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